

25.05.23.(금)

즉시 배포

Tel : 02-6788-3201, 3631 / Fax : 02-6788-3629

e-mail : minjooeuljiro@gmail.com

민주당 중앙선대위 잘사니즘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정책제안식 진행

오늘(5/23) 16:30,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정책제안식 진행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가 23일 오후 4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제안식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4대 과제, 13개 정책 제안을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날 정책제안식은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산하 잘사니즘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주최로 진행됐으며, 민병덕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과 권지웅 잘사니즘위원회 청년주거안심위원장, 피해자 전국대책위 이철빈·안상미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피해자들이 참석해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했다. 특히 4월 7일부터 5월 6일까지 진행된 ‘전세사기 특별법 전면개정 및 근절대책 촉구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 14,586명의 서명부도 함께 전달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피해회복이 더딘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와 정치권이 보다 적극적인 입법과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번에 제안된 정책은 크게 ▲피해자 실질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가해자에 대한 엄정처벌 ▲정부 차원의 협의체 구성 등 4개 분야 13개 과제다.

민병덕 위원장은 “‘지금도 그 집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언제 쫓겨날지 몰라 매일 현관문이 두렵습니다.’ 라던 피해자 한 분의 말이 떠오른다.” 며 “특별법 제·개정을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새로운 피해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을 안다.” 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요청을 진지하게 듣고 을지로위원회에서 전세피해 대책팀을 만들어서 계속

노력해 가겠다.” 고 덧붙였다.

권지웅 위원장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전세사기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피해를 당했는데 주거형태에 따라 보호를 받거나 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 며 피해자로 인정받기 어렵고 사각지대가 다양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쉽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데 못한 것도 있다. 그런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며 “여야가 합의했던 예방조치 내용도 있는데 못한 부분도 있다. 더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이철빈 공동위원장은 “2년 동안 함께해 온 피해자는 물론 최근 발생한 피해자도 함께 왔다.” 며 전세사기 피해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안상미 공동위원장은 “2년 전 경찰에 붙들려 나갔다.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후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려고 했는데 벌어진 일이었다.” 며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등 한 발짝 나아갔지만,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함께 지난번 특별법이 일부 후퇴해 걱정도 함께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최근 피해자 한 명은 “피해자들이 왜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피해가 확인되면 국가가 책임지고, 가해자가 드러나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고 말했다.

다른 피해자는 “앞서 선구제 후보상 같은 말을 했던 정치인들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지만 이번 대선공약에서 빠져 있다.” 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고 말했다. 이어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수사가 이루어져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라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부족하다는 점도 비판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전세사기특별법 제·개정 과정에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한 바 있다. 정부 반대가 많아 합의 과정에서 후퇴하기도 했지만, 대선 이후 진정성을 가지고 TF 팀을 마련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각오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잘사니즘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행사 사진]

